

<자료문의> 교육데이터연구본부 교육조사·지표연구실

연구책임자 박경호 ☎ 043-530-9570

담당자 송승원 ☎ 043-530-9601

한국교육종단연구를 통해 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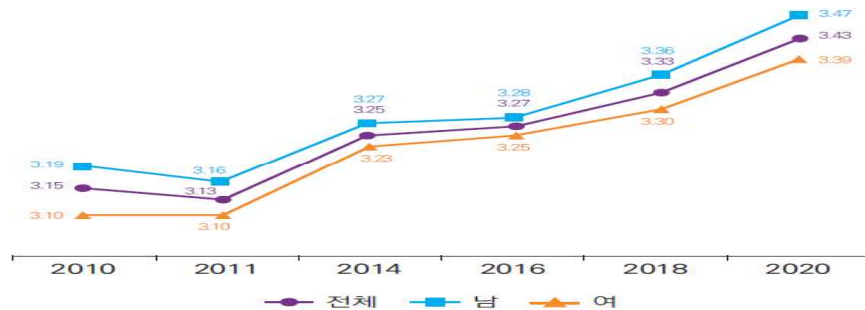
20대 청년들의 생애목표에 대한 인식 변화

- 생애목표의식(물질적 부, 명예, 사회적 공헌 등)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, 한국 청년들의 10대 가졌던 목표의식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.
- ‘물질적 부’에 대한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, ‘명예’, ‘가정화목’, ‘자기성장’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‘사회적 공헌’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여타 생애목표의식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‘인간관계’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, 이 중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.

□ 한국의 20대 청년들은 생애목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?

□ 한국교육개발원(원장 류방란)은 「2021 한국교육종단연구」(연구책임자: 박경호)를 통해 생애목표의식(물질적 부, 명예, 사회적 공헌 등)을 중심으로,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대 청년 6,908명을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삶의 지향과 지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.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▶ **물질적 부**: 2010년(평균: 3.15) 조사 이후 2011년 조사에서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20년(평균: 3.43)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, 남성(평균: 3.47)이 여성(평균: 3.39)보다 물질적 부에 관한 목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물질적 부(5점 척도)

물질적 부는 '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다', '나는 재산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', '나는 미래에 대비하여 재정 투자 및 관리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', '나는 물질적 부를 성취한 대기업 CEO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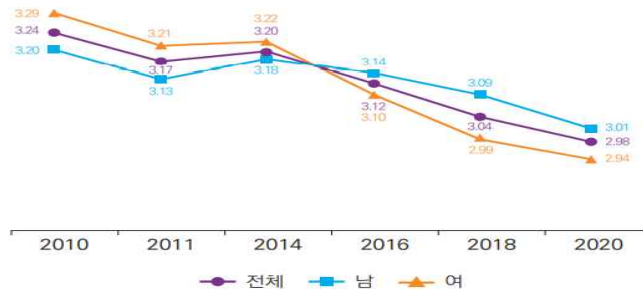
- ▶ **명예:** 명예에 대한 목표의식은 2014년 조사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음. 2020년 조사의 전체 평균값은 3.57점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

명예(5점 척도)

명예는 '나는 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', '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', '나는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', '나는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.

- ▶ **사회적 공헌:** 2010년 첫 조사에서는 사회적 공헌을 물질적 부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나(3.24점), 이후 조사에서 물질적 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, 사회적 공헌은 매우 일관되게 감소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3점 미만(2.98점)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여타 생애목표의식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낮은 값임.



사회적 공헌(5점 척도)

사회적 공헌은 '내가 사회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은 중요하다', '나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', '나는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의 사회적 기여 정도를 생각한다', '나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.

- ▶ **인간관계:** 2011년 조사 이후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의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. 2020년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3.47점이며,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함.



인간관계(5점 척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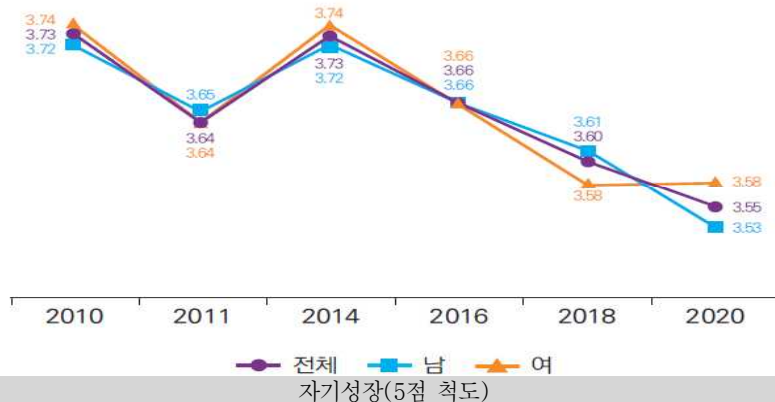
인간관계는 '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한다', '나는 인간관계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', '나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', '나는 내 지인들의 관계 유지를 위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.

▶ **가정 화목:** 여타 생애목표의식과 달리 명확한 상·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였던 2011년 조사에서는 첫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, 그 다음 조사인 2014년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. 이후 조사에서는 다시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지만, 2020년 조사에서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3.63점을 유지함.



가정 화목은 '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가치있다', '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', '나는 휴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', '나는 가족들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.

▶ **자기성장:** 명예나 사회적 공헌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역대 최저치인 평균 3.55점을 기록함.



자기 성장은 '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없는 직업은 매력적이지 않다', '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', '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간이나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', '나는 삶 속에서 자기 성장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한다' 등 4문항으로 구성됨

□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(연구책임자: 박경호)은 위와 같은 추이에 주목하고 여러 항목에서 보여주는 인간관계에 관한 의식 약화는 공동체 문화를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,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
※ 위 내용은 [별첨]의 <KEDI 브리프 22호>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. KEDI 브리프 22호는 [2021 한국교육중단연구]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습니다. [2021 한국교육중단연구]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